

石 속에서 金銅製冠이 發見되었다. 그 位置는 槨底에서 一一〇(三〇cm)의 높이이고 그 上下左右에는 積石으로 充塞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裝身用具가 이런 位置에서 發見되는지 解釋하기 어려웠다. 冠은 鍍金이 거의 남지 않았으며 形式은 아직까지 發見된 金製冠과 같으나 勾玉을 볼 수 없었다. 屍槨에서는 頭上의 土器層, 細環式 耳環을 비롯한 銀製 腰帶等 裝身具와 鐵製 太刀斧等이 發見되었다. 한편 副槨에서는 主로 大形土器들이 눈에 띄었으며 그 사이에서 銀製 鞍橋가 比較的 좋은 狀態로 發見되었고 鐵製 鎧을 비롯한 馬具들이 섞여 있었다.

이 槨 南側으로는 거의 平地化된 封土의 痕蹟이 連續되었고 現 地表 下約 二m에서 다른 積石層이 나타났으나 後日의 調査로 미루고 中斷하였다.

——三十三號墳(梨花大)——

三十三號墳은 三十二號墳 西側에 隣接한 古墳으로 封土의 形態를 제법 갖추고 있었으나 北側 即 道路邊에는 封土의 北麓을 깔고 無許可 建築物이 들어서 있다.

本墳의 封土內에는 二個의 屍槨이 底面에서 約 5m의 間隙을 두고 東西로 있었던데 西槨은 長軸이 南北으로 南向해서 埋葬했고 東槨은 東西로 東向하고 있었다. 屍槨에서의 出土品은 鐵釜, 土器, 裝身具等 通式의 것이었는데 西槨에서는 赤色土器가 없었다는 點과 武具 或은 馬具類가 極히 적다는 點이 注目되었으며 東槨에서는 白樺製 金箔冠帽가 發見된 點이 注目되었다. 이 東西槨의 底面水平은 東槨이 낮았는데 그 中間에 位置한 副槨의 狀態로 보아 東槨이 먼저 만들어졌고 西槨이 後에 만들어진 것으로 推測 되었다.

西槨 中間에 位置한 副槨은 南側으로 치우친 것과 北側으로 치우친 것의 二槨이 있었다. 南側 副槨은 西側 屍槨의 底面과 比較하여 約 1m 높은데 平面은 거의 方形으로 小形 土器가 있었다. 北側 副槨은 이보다 約 一一〇(三〇cm) 깊이가 있었고 南北으로 긴 長方形으로 南北의 길이는 東側 屍槨의 南北의 길이와 比等하였고 底面水平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 兩 副槨의 南北斷面은 北側 副槨의 南端과 南側 副槨의 北端이

重疊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南側 副槨은 北側 副槨보다 後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推測된다. 北側 副槨에는 比較的 大形의 土器가 있었으며 특히 高一m는 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 大壺가 있었다. 여기서는 金銅環과 若干의 利器도 함께 發見되었다.

以上の 兩副槨은 東西 兩主槨에 屬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兩主槨은 出土 遺物로 보아 때를 달리하여 埋葬한 夫婦의 墓가 아닌가 推測된다. 皇吾里, 皇南里에 多槨式 墳墓가 있음은 이미 報告된바 數例를 볼 수 있으나 本墳의 構造는 그들 보다도 特異한바 있었다.

資料

高麗紺紙金泥大般若經殘卷

黃 壽 永

經名은 大般若波羅蜜多經으로서 본래 卷軸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計 十枚(各枚縱二八·七cm 橫五·五cm 上下野線一一·八字徑一·〇(一·五cm)이다. 各枚兩端의 接續部에는 佛刹의 白色 흔적이 있음은 他例에서와 같은 經名이나 數字의 記入은 아니 보인다(또 이들 十枚가 모두 同一卷의 것이라 하나 調査하지는 못하였다) 紙質은 매우 두꺼운 편이며 첫번 一枚를 除하고는 保存이 良好하다 是은 上下와 行間에는 太細單線이 그려지고 各行 十七字인바 그중 一枚의 末尾에는 本文 끝에 「大般若波羅蜜多經卷一百七十五」이라 하였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七行의 金泥의 跋文이 判讀되었다.

特爲

菩薩戒弟子南瞻部洲高麗國金吾衛大將軍大相太子左藍門卒府卒 金 融 範
君王萬壽家國一平及先落祖親後亡考妣

成兄將弟妻與孥焉存者樂生沒者戚
果金銀字六百般若經也

時清寧年三月 日記

發願者인 金融範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다. 高麗年代인 淸寧은 遼道宗代年號로서 十年까지이며 이것은 高麗文宗九年부터 十八年(一〇五五)~一〇六四)에 해당된다. 그러나 年數가 없으므로 어느 해인지 不明인데 이것은 혹시 脫落되었던지 또는 故意로 記入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六百般若經이라 함은 大般若波羅蜜多經 六百卷을 가리키는바 金銀字라 하였음에서 金字 및 銀字로 兩本을 따로 寫成한 것인지 또는 單本을 兩字로 쓴 것일까 아마도 後者의 경우일 것이다.

이 殘卷 十帳의 出處는 未詳인데 木函 안에서 發見되었다고 함에서 혹 腹藏品이 아니었을 가 한다. 發見年代는 日帝時라 하며 오랫동안 收藏하였던 것이라고도 한다. 八月 八日 扶餘向發直前 서울驛에서 暫見하였기에 간단히 記錄하여 둔다.

(追記) 再調한바에 의하면 以上十枚는 모두 大般若經卷一七五의 後半으로 連續된 것이다(海印寺藏經大般若一百七十五第九張般若波羅蜜多復次世尊若新學大乘...以下 第二十五張卷末) 各帳은 行數가 同一하지 않아 二十九行 乃至 三十二行이다. 따라서 글자에 大小가 注目된다(八月 十九日)

扶餘舊校里發見의 文字石片

洪 思 俊

一九四六年 봄으로 推想되는 扶餘邑舊校里出土 斷碑에 左記詩句가 있다. 破損된 形態로 보아서 文字面을 연마한 것이 아니고 花崗岩을 거칠게 다듬고 文字를 陰刻하였다. 出土地가 舊校里某家 안뜰에 使用한 것을 博物館에 搬入한 것인데 重量은 壯丁이 질 수 있는 石材이어서 扶蘇山附近 어느 곳에서 가져다 놓은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 字大는 縱 3.5 cm 橫 3 cm의 楷書로 된 三行이다.

「登樓聞夕聲 臨壁憶
殘春天授二年利 重回

○○近 韓啓源」

樓에 오르니 저녁 쇠목소리가 들리고 벽에 다다르니 殘春이 아깝더라 (楮||借) 天授二年에 創建된 절인데

거들」 「이 도라 왔더라.

第六卷 第八號 通卷六十一號

이와 같은 詩意로 韓啓源의 詩吟을 알겠는데 李朝時에 만들어 진것을 짐작할 수 있어 扶餘誌 官案을 보았으나 該當人名은 없다 이 詩句에서 注目 할 것은 天授二年과 「重回」라는 것으로 「重回」는 韓啓源이 二次에 걸쳐 扶餘에서 寺院에 왔던 것을 알겠으며 「天授二年」은 高麗王建太祖의 年號로서 西紀九一九년에 該當된다. 그러면 「天授二年利」은 지금부터 千有餘年前寺院에 韓啓源이 들린 것인데 이 斷石의 出土地가 舊校里이며 扶蘇山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扶蘇山에서 古利인 것이 分明하다.

지금 扶餘 扶蘇山北麓 白馬江左岸에 있는 阜蘭寺가 一般人士에게는 百濟古利인 듯 誤傳하고 있으나 當該寺域에는 高麗代의 石礎와 石柱이 있음으로 보아서 이 斷石도 阜蘭寺에서 流逸된 것이 아닐가 憶測되는 것이다. 扶蘇山周邊에는 寺址로 認定되는 地點이 以前에는 없음에서 그러하게 思料되는 바이다.

考古美術 一

◎文化財委第一分委(第十二次)

七月二四日 午前十時 文化財管理局 會議室에서 開催. 出席은 金庠基 金斗鍾 金允基 金載元 李弘植(委任) 李相佰 黃壽永委員 및 申榮勳專門委員外局課, 係長과 營繕係長.

報告事項

一、金庠基委員長發言

오즈음 新聞報道에 物議를 일으키고 있는 石窟庵濕氣에 對한 新聞社側의 一方的記事에 對하여 東亞日報 編輯局長에게 解明한데 對한 發言이 있었음

二、金孝經調查委員發言

(1) 石窟庵濕氣調査에 對한 現況과 除濕施設設置에 對한 報告

(2) 除濕施設에 構造 및 美觀上 拘碍를 받지 않으면 早速한 時日內에 除濕施設에 完壁을 期할 수 있겠음

(3) 發電機設置에는 發電機의 騒音과 기름냄새 등을 參酌하여 位置를 定하도록 하겠음

三、石窟庵電氣施設關係